



제27회 광주미술상을 수상한 윤종호 작가는 '영원한 정원'을 주제로 열리는 개인전에서 조각과 초록식물이 어우러진 실내정원을 조성했다.

# “실내 예술정원”서 잠시 쉬어가세요

도시에 소박한 실내 정원이 생겼다. 유칼립투스 등 초록식물들이 공간을 메우고 있고, 조각으로 형상화한 다채로운 꽃들이 한가득이다. 어디선가 물소리도 들리고, 나즈막히 깔린 음악을 들으면 힐링이 된다.

조각가 윤종호(41) 작가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문화공간 김넷과 갤러리(동구 구성로 240번길) 지하 1층 전시장에 들어서면 초록의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광주미술상 수상작자에게 주어지는 기획이다. 올해 27회를 맞는 광주미술상은 지역 원로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후배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상으로서 의미가 있다. 윤 작가는 독특하게 조각과 정원예술을 함께하고 있다. (사)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이사장 조규일)는 조형작업에 식물생태를 결합한 정원예술을 탐구하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영원한 정원(Endless garden)”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성장순환을 거듭하는 자연식물과 조형작품을 함께 구성해 독특한 식물정원을 조성했다. 요즘같은 시절에 치유와 희망을 전하는 맞춤형 전시다.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 박사 과정을 졸업한 윤 작가는 지난 2017년부터 정원예술 작업도 함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원 예술은 야외에서, 조각전은 실내에서 진행했어요. 그러다 식물도 보고, 조각 작품

광주미술상 수상, 윤종호 개인전 14일까지 문화공간 김넷과갤러리 꽃·식물에 조각·물소리까지 ‘힐링’

도 만나는 예술정원을 실내에 꾸며 보면 어떻게 생각했지요. 사람을 치유해 주는 식물의 효과를 만났으면 해서 물소리와 향기도 넣구요.”

이번 실내정원의 모티브는 그가 보성 시골에 마련한 작은 텃밭정원이다. 작업할 때 쓰기 위해 예키네시아, 갈대, 사계바람꽃, 장미, 백합 등을 심어놓은 정원은 그의 안식처다. 힘이 들고 지칠 때면 ‘꽃멍’을 때리며 휴식을 취하고 작품의 아이디어도 얻는다.

전시장에 놓인 식물은 이끼부터 아래카 야자수, 폴리안, 유칼립투스, 여인초, 고사리 등으로 그의 정원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이다. 장미, 모란, 사계바람꽃 등 다채로운 꽃은 건축용 재료로 사용하는 우레탄폼을 제작했다. 땀처럼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어 다양한 조형물을 만들 수 있다. 꽃과 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늘 함께하는 사슴벌레, 나비 등 곤충도 우레탄폼과 절판으로 만들었다.

“꽃은 그가 즐겁게 작업해온 소재다. ‘제 작업의 첫 주제는 ‘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페르소나를 나타내고, 자기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장치였죠. 이후 꽃작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꽃을 육망과 연결시켜 작업했어요. 그러다 자연이 좋아지며 풀과 나무 꽃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현수막이나 향토로 꽃을 만들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요.”

사실, 정원작가가 시작은 생계와 관련이 있었다. 조각 작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4년 정도 조경회사에 다녔는데, 그 때 나무와 식물에 눈을 떴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후 정원컨테스트에서 수상하고, 프랑스 소용성가든페스티벌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이번 전시는 김넷과 1층 카페에서부터 시작된다. 커다란 꽃 조형물과 곤충 조각을 지나면 지하 전시실로 내려가는 입구에 정원 일과 노동을 상징하는 삼, 물뿌리개 등이 설치돼 있다. 계단을 따라 이어지는 긴 간들은 물줄기를 나타낸다. 정원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예쁜 벤치가 놓인 포토존도 있고, 자신의 텃밭 풍경을 촬영한 영상도 상영중이다. 구석구석 숨겨진 식물과 소품 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겨울에 빛을 받는 종류도 있지만 꽃과 나무는 대개 겨울이면 원래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지요. 전 조각을 통해 계속 피어있는 꽃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정원에서 느꼈던 편안함을 관람객들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잠시 쉬어가는데, 작은 위로와 치유가 되는 전시였으면 합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유행 지난 청바지가 생활용품으로

아모르공방 ‘Re:쓰임’ 전, 12일까지 드영미술관

버려지는 낡은 청바지가 변신했다. 편안한게 쓸 수 있는 파우치 등 다양한 가방과 앞치마 등으로 새롭게 쓰임새를 갖게 된 물건들은 실용적이며 개성을 담고 있다.

무등산 자락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이 진행하는 2021 환경섬유공예 커뮤니티 ‘아모르공방’ 결과전시 ‘Re:쓰임’전이 오는 12일까지 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열린다.

드영미술관은 문체부와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사업의 일환으로 2년째 ‘아모르공방’을 운영중이다.

‘아모르공방’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지역민과 함께 인식하고 예술 안에서 환경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꾸려진 모임이다.

‘아모르공방’은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유행상품을 빠르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패스트패션(fast fashion)’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집중했다.



유행 지난 청바지와 옷가지를 활용해 생활 용품을 만드는 환경섬유공예를 시작한 아모르 공방은 이번 전시에서 집안의 옷가지(청바지)를 활용한 가방과 앞치마, 슬리퍼까지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모습을 탈바꿈한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라몰의 땅’ ‘어디로 가야하지?’

ACC 4~5일·11~12일, 자연·생명가치 어린이 공연

자연과 생명가치를 되짚어보는 어린이공연 2편이 관객들을 만난다. ACC 어린이극장 무대에 올려지는 두 작품은 ‘라몰의 땅’과 ‘어디로 가야하지?’로, 2020 아시아스토리 어린이 콘텐츠 공모 선정작이다.

극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용신)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은 지난해 비대면 선보임 공연 이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였다.

먼저 생명의 존엄함을 신화와 동화로 엮은 ‘라몰의 땅’은 오는 4~5일 펼쳐진다. 인도 히마찰프라데시 지역 민담을 소재로 라몰 가족과 친구 야크가 떠나는 모험의 여정을 담았다. 놀이 형식의 기구와 자연의 소리로 구성

된 음악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해석했다.

멸종의 문제를 다룬 ‘어디로 가야하지?’는 11~12일 관객들을 만난다. 말레이시아의 작가 유소프 가자의 그림동화 ‘코끼리 동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으며 서식지를 잃은 동물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모습을 매개로 조명한다. 무분별한 개발이 가져온 환경파괴와 서식지를 잃어버린 이들의 단면은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일깨운다.

두 작품 모두 전석 1만원.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과 콜센터(1899-5566)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베르베르 책 절반 이상 한국 판매...한국어판 3천쇄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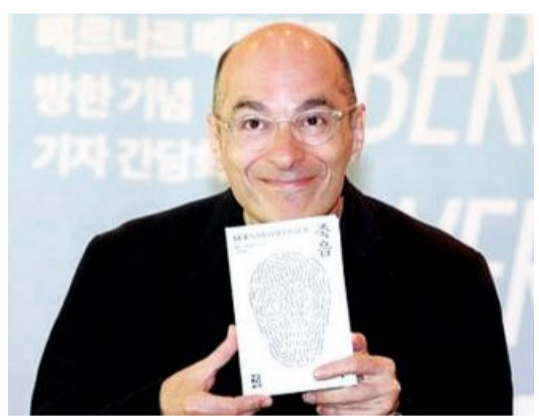
프랑스 출신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 한국어판이 이달 들어 발행 누계 3000쇄를 돌파했다고 출판사 열린책들이 2일 밝혔다.

그동안 그의 작품은 1993년 번역 출간된 ‘개미’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총 1250만부 이상 판매됐다. ‘개미’, ‘늑’, ‘신’, ‘나무’는 각각 누적 판매부수 100만 부를 넘긴 밀리언셀러가 됐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은 35개 언어로 번역됐으며, 세계적으로는 2300만부 이상 판매됐다. 전세

계에서 판매된 작가의 책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팔린 셈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1991년 첫 장편소설 ‘개미’를 펴내 올해가 데뷔 30주년이다.

그는 특히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로도 유명하다. 작가는 “나는 작품을 쓸 때 언제나 한국에 있는 독자들이 읽어 줄 것을 염두에 두고 쓴다”며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독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출판사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출신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p><b>옥상지붕공사</b></p> <p>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p>	<p><b>옥상스틸방수</b></p> <p>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p> <p>[ 겨울의 차가운 냉기 ] [ 여름의 뜨거운 열기 ]</p> <p>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p>
---	--

**모던건설**  
(트윈스틸) **신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전남**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b>062) 227-9940</b> <b>062) 227-9970</b>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b>02) 765-9940</b>
순천점	중앙시장 앞	<b>061) 752-9940</b>